

## 김영오 발전계획서



수월 · 융합 · 창의

**秀·融·創** 인재의 배출

**秀·融·創** 연구의 선도

서울공대의 대전환이 **‘시작’**됩니다.

**‘시작’**이라는 단어만큼  
우리를 가슴 뛰게 한 말이 있었는가

‘변화’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.  
언젠가는 변화는 생기기 마련이니까.

중요한 건,  
변화의 **‘시작’**이다.  
**‘누가’** 시작하느냐  
**‘언제’** 시작하느냐  
**‘시작’**이  
변화의 진정한 가치이다.

지난 1년여 동안 저는 330여 명의 서울공대 거의 모든 교수님들을 만나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**3,000여 줄**에 달하는 기록들은 때로는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던 **학내 이슈**들이었고, 때로는 몰아치고 있는 **외부의 위협**이었으며, 때로는 비합리에 침묵하고 있는 서울공대의 안일함이었습니다.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해 교수님들과 공감하면서 저는 여기에 제 역할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

이는 공대 주니어 교수모임을 시작하여 **젊은 교수들의 목소리**를 모아 당시 학장님께 전달하였던 기억들, 본부 보직을 수행하면서 복잡한 **학내 이슈**들을 소통하였던 시간들, ‘과실연’ 상임대표로서 **건전한 비판을 당당히 정부에** 전달했던 경험들,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축적된 폭넓은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저 김영오는 감히 **서울공대의 영킨 문제들을 푸는 시작점, 서울공대의 당당한 목소리를 높이는 시작점, 서울공대의 격을 올리는 시작점**이 되고 싶습니다.

이를 위해 저는 차원이 다른 서울공대만의 **인재상을 정립**하고 대내외에 선포하여 이에 상응하는 **국가 지원과 민간 기부**를 획기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. 우리 자신의 **지경을 밖으로 확장**하고, 서울공대만의 가치를 널리 알려 늘 선한 뉴스의 중심이 되겠습니다. 그 성과가 학생에게 투자되고 교수에게 환원되어 **공부하고 싶은 캠퍼스, 일하고 싶은 직장**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 서울대학교 정관 2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미션 “새로운 지식 창출, 창의적이고 헌신적 인재 양성, 인류 번영에 공헌”에 근거하여, 저 김영오는 수월(Excellence), 그리고 융합(Integration)과 창의(Creativity)를 지향하는 학문공동체, **서울공대 대전환의 ‘시작’**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.

- ◆ **서울공대의 비전:** 수월·융합·창의(秀·融·創)의 학문공동체
- ◆ **서울공대의 인재상:** 수월·융합·창의(秀·融·創)의 글로벌 리더
- ◆ **추진전략의 모토**
  - 1 **실행** (취임과 동시에 모든 아젠다의 실행을 시작)
  - 2 **협력** (Government Affiliates & Industry Alliance 구축)
  - 3 **소통** (교수 누구나 발의 가능한 정기적 열린 토론회 개최)
- ◆ **성과 목표:** 2배의 발전기금, 3배의 복지, 5배의 교류, 10배의 홍보



**ENGINEERING**  
COLLEGE OF ENGINEERING  
SEOUL NATIONAL UNIVERSITY  
서울대학교공과대학

# 김영오 발전계획서

## 아젠다 01 수·융·창(秀·融·創) 인재의 배출, 서울공대가 선도합니다.

### 1-1 서울공대 인재상 선포 및 '인재역량센터' 신설

- 현실진단: 기술 대전환의 시대, 미래 인재상에 대한 숙의는 전무했습니다.
- 추진계획: 서울공대만의 인재상을 만들고 2025년 관악캠퍼스 50주년을 맞아 선포하겠습니다. 서울공대 내 '인재역량센터'가 창의적 인재의 선발, 수월성 교육, 융합형 인재의 배출을 전담하겠습니다.

### 1-2 공학교육혁신센터를 교과과정기획팀과 학습기술지원팀으로 확대 개편

- 현실진단: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정부 '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' 수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
- 추진계획: 교육과정기획팀은 50여 개 공대 공동교과목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지속해서 평가하겠습니다. 학습기술지원팀은 'Adaptive Learning System'을 도입, Big Data 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.

### 1-3 강의시수 연 9학점 추진

- 현실진단: 모든 후보가 약속했지만, 지키지 못했습니다.
- 추진계획: 공대의 논문연구학점을 연 3학점 더 인정하여 서울공대 교수 1인당 연 강의 시수를 현재 12학점에서 9학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## 아젠다 02 대한민국 R&D, 이제 서울공대가 주도합니다.

### 2-1 공학연구원 산하 연 5억원 예산의 '서공 Think Tank Center(TTC)' 신설

- 현실진단: 공학연구원은 소극적 관리 행정만 담당하고 있습니다.
- 추진계획: '서공 TTC'는 특임교수를 채용하여 국가 공학기술을 진단·전망하는 'SNU Technology Outlook'을 발간하겠습니다. 선도 공학기술 클러스터를 10개 론칭하여 서울공대의 연구성과를 국가 아젠다로 개발하고 Block Deal 형태의 대형 연구사업으로 이어지게 기획하겠습니다.

### 2-2 Industry Alliance, 민간 R&D 플랫폼으로

- 현실진단: 산학협력 전문기관 공학컨설팅센터는 어느 순간 '창업 지원' 위주로 축소되었습니다.
- 추진계획: 공학컨설팅센터에서 Big Data 분석 기반 Knowledge Mapping 플랫폼을 구축, 기업을 찾아가는 양방향 산학협력을 시작하겠습니다. 회원을 유치하여 Industrial Alliance의 키 포스트가 되겠습니다. 창업지원은 서울공대 교수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특화시키고, 비합리적 규정은 과감히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.

### 2-3 서울공대 자체 연구비 및 기금석학교수 제도 대폭 확대

- 현실진단: 국가 R&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연구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.
- 추진계획: 실패한 연구, 탈락한 연구, 미완의 연구,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'7전 8기' 연구지원사업에 매년 10억원을 배정하겠습니다. 모든 조교수에게 1인당 연 2,000만원(총 7~8억원)의 기본 연구비를 매년 지원하겠습니다. 기금석학교수 100명 프로젝트 론칭, 임기 내 33명 실현하겠습니다. 공대 연구소 운영부장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.

## 아젠다 03 서울공대 기금 유치와 홍보, 차원이 달라집니다.

### 3-1 발전기금 365억원 달성

- 현실진단: 서울공대만의 발전기금 브랜드 파워가 미약했습니다.
- 추진계획: 7대 발전기금 EXCEL(Education for X-Caliber Engineering Leader) 프로젝트를 발굴하겠습니다. 학부학과 발전기금 유치 시 공대 학장단이 함께 동행하고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은 학장실에서 직접 담당하겠습니다.

### 3-2 대외협력 체계 강화

- 현실진단: 서울공대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고 교수 개인 차원의 산발적 노력만 존재합니다.
- 추진계획: Government Affiliates, Industry Alliance 등 서울공대 초청 관산학 Bi-monthly Alumni Forum을 개최하여 향후 발전기금과 산학 연구과제의 인프라로 만들겠습니다. 스타트업 성공 동문 초청행사를 시작하여 재학생과 젊은 동문들 간 서울공대 Spirit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.

# 김영오 발전계획서

## 3-3 10배의 홍보

- 현실진단: 서울대학교 뉴스클리핑 중 서울공대는 5%에 머물고 있습니다. 서울공대 Facebook은 2021년 5월 28일에 멈춰 서있습니다.
- 추진계획: 홍보실을 확대 개편하여 기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홍보 전략으로 전환하겠습니다. Technical Writer를 고용하여 서울공대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알리겠습니다.

## 아젠다 04 서울공대, 신명나는 일터가 됩니다.

### 4-1 버팀목이 되는 직장

- 현실진단: 어디에 물어볼지 모르겠다는 신입교수님, 본의 아니게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불안하다는 교수님,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과 고충을 토로하는 주니어 교수님들을 여럿 보았습니다.
- 추진계획: 신입교수 및 조교수 전용 상담 및 서울공대 전용 불편 접수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. 법무/노무/세무/ 안전 등 교수 개인 보호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. 출산/육아 지원도 성별과 직급에 상관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하여 강의 시수 감면 등 맞춤형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.

### 4-2 건강하고 편안한 일터

- 현실진단: 연이은 안타까운 소식들로 인해 서울공대 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식사와 주차의 만성적 문제가 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공개적 논의는 없었습니다.
- 추진계획: 건강검진 시 서울공대 지원비를 교수당 50만원(현재의 약 2.5배)으로 증액하겠습니다. 두레미담 1층 식당에도 교수 전용 공간을 오픈하겠습니다. 공론화를 거쳐 신공학관과 본공학관 각각 거점 주차시설(각 250억 규모)을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.

### 4-3 대화와 교류가 넘치는 일터

- 현실진단: 공과대학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 모르는 교수님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소모임에서의 소소한 즐거움도 줄고 있습니다.
- 추진계획: 공대 내 (취미, 연령별) 소모임에 연 5,000만원(15개 각 약 300만원)을 공대 교수협의회로 지원하겠습니다. 매달 마지막 금요일 16시에 학부학과 또는 연구소 초청 교수 교류회를 추진하겠습니다. 공대 교수님 누구나 발의가 가능한 정기적 '열린 토론회'를 개최하겠습니다.

## 아젠다 05 서울공대 국제 교류, MOU를 넘어 실행 중심으로

### 5-1 공대 차원의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단 신설

- 현실진단: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 투자에 비해 서울공대 차원의 준비는 미비합니다.
- 추진계획: 공학연구원 내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 연구위원을 고용하여 서울공대 교수님들의 Global Alliance Projects 관련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.

### 5-2 초우수 학부생 유치

- 현실진단: 초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아시아 우수 대학에 뺏기고 있습니다.
- 추진계획: 글로벌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개발도상국 초우수 학부 신입생을 50명까지 유치하고 Summer Senior Research Intern도 20명 이상 선발하도록 기획하겠습니다.

### 5-3 국제협력실 확대 개편

- 현실진단: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는데, 국제협력실 인력은 10년 전과 거의 그대로입니다.
- 추진계획: 국제협력실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여 인바운드/아웃바운드 학생 및 교수님의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개발도상국과의 사회공헌형 적정기술 교류도 전담 직원을 두겠습니다.

실행할 수 있는 공약만 담았습니다.

공대 교협에 '발전계획이행평가위원회'를 제안하여 매 학기 평가받겠습니다.

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. 취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.

서울공대 대전환의 시작점 김영오 드림

